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정책 방향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촌지역정비연구팀장
엄 대호 박사

1. 서론

어떤 생명이나 조직이 살아가고 유지발전되어 간다는 것은 순환이 이르기 때문이다.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농촌이라는 생명체가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징조는 어디에 있는가, 농촌에서는 생명이 잉태하는 경우가 더물다. 젊은 사람은 대부분 빠져나오고 나이들어 거동을 잘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든 퇴직하는 사람이 있고, 신입사원이 있어 퇴직한 만큼 신입사원으로 채워져야 그 조직의 미래는 신입사원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농촌이라는 조직은 신입사원이 없어 농촌이라는 조직,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농촌이라는 조직이 무너지고 있는 징조라고 할 수 있으며, 농촌이라는 생명체가 시들고 있는 징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다면,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범국가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현재로서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농촌어메니티는 유럽등 선진국에서 농촌개발의 논리 및 수단으로서 발전시킨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잘 개발하여 추진한다면 농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도농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어메니티는 유럽에서 유럽의 단일시장화와 세계화로 인적, 물적자원의 집중화로 집중화로 인한 역기능들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농촌공간이 보유한 자연적, 환경적, 문화적 자원의 잠재적 가치들을 발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어 1980년 초부터 일부 농촌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농촌부흥으로 인한 인구 역전 현상은 농촌인구의 사회학적 구성의 변화를 수반하면서 지역사회가 농촌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한 정책개발논리 및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보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농촌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유산들을 보호하고 그 질을 유지하는 것이 농촌개발정책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주로 OECD를 통해 진행된 농촌어메니티 담론은 20여년을 지속해 오면서 그 두께와 지평을 꾸준히 확장시켜 왔다.(김정섭, 2001). 이러한 농촌어메니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농촌개발의 핵심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련 연구와 정책·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접근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개발, 추진조직 및 시스템을 확립해 나간다면 농촌의 활력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필자는 본고에서 농촌어메니티 개발에 의한 도농교류 활성화 사례를 고찰하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여 향후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새로운 추진 방향 정립에 도움이 되고, 농촌의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농촌어메니티 개발에 의한 도농교류 활성화 사례

2.1 보성녹차

보성녹차가 농촌어메니티 개발에 의한 농촌지역을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보성녹차가 활력을 찾기 시작한 것은 아름다운 녹차밭이 일반인들에 알려지면서 군의 주도하에 농가, 산업체, 대학 등이 협력하여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마케팅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녹차재배면적만으로 볼 때도 2002년도 190호였으나, 2004년도에는 537농가(646ha), 2006년도에는 1,358호(1,111ha)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런데, 2005년까지는 급격한 증가를 하였으나, 2005년도 후반부터 수입 현미녹차의 영향등으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재배면적 증가에 있어서도 정체상태에 있으며, 유사 녹차 수입 물량 증가로 일정한 가격조정과 재배면적의 정체는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2007년 현재, 녹차가공공장은 64여개에 달하며, 그중 자동화공장은 12개(2004년도 7개), 수제차 가공등 기타 캔녹차 가공공장을 합하여 64여개에 달한다. 가공시설도 2004년에 비해 2년사이에 약 2배가 증가했다. 가공능력에 있어서도 1일에 2005년도에 32.8ton 생산할 수 있었으나, 2007년 현재, 54.3톤

을 생산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

녹차농업클러스터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연구개발, 기반시설, 가공시설 등에 투자되어 영세한 생산농가도 공동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재배면적 증가는 산지의 개간 여건이 어려워 주로 논과 밭에서 이루어졌다. 녹차산업의 활성화로 쌀재배면적 감소, 발작물 재배 면적 감소 등으로 농산물의 수급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녹차의 가격이 일본에 비해서는 비싸고, 수입 유사 녹차의 증가 등으로 가격이 2006년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하나의 녹차파동으로 봐도 될 것이다.

녹차밭이 어메니티가 증진된 경관자원이라면, 주변의 해수탕은 관광객의 휴양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 관광객의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녹차만들기 체험을 농가에서 진행을 함으로서 체험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녹차를 가공한 제품과 녹차체험, 녹차밭 관광, 해수탕등 관광기반 등으로 녹차로 형성되는 어메니티로 인해 2006년도에는 연간 600만명이나 보성군을 찾았다. 2004년도에 비해 관광객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보성에는 봄의 철쭉으로도 유명하다. 아름답게 물들인 철쭉은 녹차밭과 함께 훌륭한 어메니티를 연출하여 관광객들의 매력이 되고 있어 관광객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2 봉평 메밀

봉평은 이효석 문학관, 무이예술관, 이효석 생가터, 덕거 연극인촌, 흥정계곡 및 허브나라 등 주변의 경관이 좋은 곳과 함께 매년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다. 봉평은 이효석이라는 문학과 문학속의 메밀꽃 향기가 어우러져 어메니티를 잘 발현시킴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효석문화제축제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을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메밀을 보러온다는 것이다. 물론 메밀꽃을 테마로 하는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낭만적인 정감을 느끼기 위해서이다.

이 지역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마을주민들이다.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효석문화제축제위원회를 조직하고, 스스로 자발적

으로 전주민들이 참여하는 효석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부터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평창군에서는 메밀을 심는데 대한 비용에 대해 예산지원을 하게 되고, 문화관광부에서도 효석문화관 건립, 무이예술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지원을 농림부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로 지정하여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1999년도에 관광객이 35천명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572천명으로 6년동안 16배가 증가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약 1백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로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관광객들이 총 230억원 정도를 지역에 방문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329억원, 소득유발효과는 8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성공에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어떻게든 지역을 활성화 시킬려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지역도 활성화가 되면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럼에 따라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고,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다. 지금까지 서울등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농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불하고 메밀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지가의 상승으로 재배지역을 옮겨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현재, 많은 농지가 부채지주라서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지역주민들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봉평과 같이 타 지역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역활성화에 대한 편익을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계획적·체계적 어메니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3 함양 하고초

이 지역에서 하고초를 2001년도부터 재배하기 시작했다. 하고초라는 풀꽃이 과거부터 한방과 민간에서 고흥압, 자궁염, 혈을 통하게 하는 눈병 등에 효과가 있어 한방이나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고초를 이용하여 벌꿀을 생산하기 위해서다. 2001년부터 하고초꿀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주민들이 참여, 개발하여 생산에서 가공·판매까지 함으로써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2005년부터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로 지정되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어메니티증진과 농가소득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06년 현재 하고초 관련 16종에 대해 의장, 상표 등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2004년부터 한해에 5,000 되나 생산하여 서울 강남 등 대도시에 전량 판매를 하

고 있어 참여 17농가의 순수익은 약 225백만원에 이른다. 그리고, 2006년부터 하고초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하고초꿀의 브랜드도 높아져 수요가 많아져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본 마을도 마을주민들의 노력으로 하고초라는 건강초를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 및 지원을 받아 자발적인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매출 및 소득을 늘리고,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받아 우수한 경관을 조성하여 어메니티를 증진시켜 관광객을 끌어들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하고초꿀 축제기간 연장, 하고초 엑기스 개발 및 약리성분 임상 실험실시 등 하고초 건강식품 개발을 통해 하고초꿀의 증산과 하고초라는 우수한 경관조성으로 꿀의 매출 증대,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농촌어메니티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함양의 하고초마을은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민의 휴양과 휴식을 위한 쉼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하고초 전원 음식점, 가족 휴가 쉼터 등의 농촌관광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본 마을은 하고초라는 건강식물을 소재로 아름다운 경관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공식품의 개발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여 소득화시킨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접근

3.1 농촌어메니티는 생명이다.

농촌어메니티는 즐거움, 정감, 평온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단어는 생명인 사람의 감성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감성으로 느끼는 것중에서 가장 심오하게 느끼는 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 신비로운 감동을 주고, 사계절이 바뀌면서 봄이 되어 만물이 소생할 때 사람은 소생하는 생명들을 보면서 감명과 즐거움, 인생의 의미 등을 느낀다.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삼라만상의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체를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농촌어메니자원중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서는 농작물이 으뜸이다. 겨울을 지나면 땅속에서 쉬었던 만물이 소생하는데, 그러한 생물들중에 인간

의 먹거리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먼 옛날부터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시작되었다. 농업과 관련된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경우 주식인 쌀의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성과와 세계화·개방화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개념이었으나, 이제 인간의 새로운 욕구중의 하나인 자아실현, 휴양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접근이 농촌어메니티의 개념이다.

농촌어메니티는 생명이며, 그러한 생명중 인간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농업이 농촌어메니티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3.2 농촌어메니티는 조직체(Organization)이다.

조직체는 유기체라고도 한다. 살아서 움직일 땐 움직이더라 생명이 다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조직은 처음엔 태동을 하기 위해 몇사람이 모이고 그러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생기고, 리더를 축으로 하여 조직은 운영되고 발전한다. 농촌어메니티도 인간이 평온하게 즐겁게 느낄 수 있는 농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실체(entity)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메니티 실체 들은 각각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어메니티로서의 가치가 없다. 최소한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든지, 식생활에 올려져 음미할 수 있을 때 어메니티가 되며, 어메니티 가치를 잘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가꾸든지, 가공하든지, 필요할 경우는 가꾸고 가공한 것을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하여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의 욕구가 있을 때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어메니티 가치가 느껴지는 것이다.

조직체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구성원들이 모여 각자의 활동을 하고 그러한 활동이 조직의 성과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활동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제품이든, 서비스가든 가장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조직도 구성원이 흩어지면 망하듯이 어메니티와 관련된 요소도 각각이 흩어져 있으면, 가치발현이 어려워 어메니티로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 농촌어메니티의 가치를 높이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간의 활동이 필요하고, 인간의 활동은 어메니티의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활동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업활동이고, 그리고 그린투어리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3.3 농촌어메니티는 서비스산업이다.

인류사회는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발전하였다. 정보화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서비스산업이 60%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서비스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농촌어메니티의 현시화(顯示化)와 관련 정책은 그린투어리즘이 대표적이다. 그린투어리즘은 농촌관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농촌관광은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린투어리즘의 발달이 농촌어메니티의 가치를 잘 발현시킬 수 있으며, 그린투어리즘은 관광산업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농촌어메니티는 서비스산업으로 볼 수 있다.

농촌관광서비스는 사회경제학적인 가치측면에서 고찰하면, 우리의 경제사회는 유형·무형의 다양한 가치물과 유용재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유형의 가치물을 재화라고 부르고 있다. 반면에 무형의 가치라 함은 관광객을 안내하고, 사람이나 재화를 수송하기도 하고, 정보를 수집·조사하기도 하고 통신하기도 하는 등 그 자체로는 물재(物財)가 될 수 없고, 다만 이동, 정보의 창조, 정보의 전달 및 제공이라고 하는 기능과 가치로 형성되는 무형의 가치 또는 그 용역으로서 이를 총칭하여 서비스라 말할 수 있다.(박성수, 2006)

산업의 종류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하면, 제조업은 제품 상품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서비스보다 높은 경우이고, 서비스업은 서비스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농촌어메니티는 사람이 즐거움, 평온, 정감 등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린투어리즘으로 현시화가 되고 있으며, 서비스비중이 높으므로 서비스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3.4 농촌어메니티는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농촌어메니티가 인간사회에 경제적 기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 자원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원도 있다. 그리고, 수요자의 니즈(needs)가 어떠한에 따라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가 달라진다. 어메니티 자원

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품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 농촌어메니티는 사유재의 성격보다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품질관리 활동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농촌어메니티의 증진으로 수혜를 받는 쪽은 도시민, 해당 어메니티를 느끼는 사람이므로 공공재의 보전·관리적 접근이 더욱 필요하므로 어메니티관련 정책과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인 경우에는 개인의 자산가치 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소유자가 어메니티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지역전체, 국가전체에 기여하는 기능이 우세하므로 국가차원의 정책, 사업,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농촌어메니티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어메니티가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지 자원발굴을 해야 하며, 발굴된 어메니티 자원은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어메니티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브랜드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3.5 농촌어메니티는 농촌다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날 마케팅에 대한 개념정의는 “기업(개인 또는 비영리조직도 포함)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개인이나 집단들과 가치 있는 제품을 교환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제품(또는 서비스)을 제공하고, 고객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전을 지불하는 교환과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마케팅이다.(조원길 등, 2004)

시장을 소유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기업들은 무수한 시행착오를 하면서 오늘날의 마케팅을 확립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마케팅을 판매, 광고 또는 유통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마케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 중에도 이들의 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판매, 광고, 유통은 현대마케팅의 존재를 가능케 한 역사적 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마케팅은 판매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다. 마케팅 철학이나 기법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궁극적으로 마케팅의 존재이유가 판매 증진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조원길 등, 2004)

이러한 마케팅을 농촌어메니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T.V, 인터넷, 신문광고, 세일즈직원 고용 등에 의한 마케팅으로는 농촌어메니티의

본질을 흐리게 하여 도시 및 타산업과 관련 제품과 차별화를 하기 어려워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 농촌어메니티를 농촌다움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농촌다움이란 농사를 짓는 농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인심, 깨끗한 자연, 순수한 정서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미지를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는 일반적인 마케팅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농촌다운 마케팅 전략은 농촌어메니티는 그 지역의 기후, 자연, 그 지역문화 전통 등에 관련되므로 이러한 특성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장소마케팅, 감성마케팅 전략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그래서, 농촌어메니티의 마케팅 전략을 농촌다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순수함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오염되지 않은 농민이 정성들여 지은 농산물이고, 청정한 자연, 인간미가 있는 우리 마을이라는 것을 잘 알리는 네트워킹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성급하게 많은 대중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온 고객을 정성으로 관리를 하는 단골 고객의 확보를 위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정책 방향

EU등 선진국은 농산물의 과잉으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1990년부터 농촌어메니티의 개념을 농촌정책에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농촌을 가꾸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농촌어메니티의 개념이 도입되고, 농촌어메니티 및 그린투어리즘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한 정책·사업중 대표적인 것이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보전직불제 등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이젠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있으며, 농촌어메니티도 개념 도입 차원을 넘어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정책 및 사업에 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농촌어메니티는 농촌에 있는 농지, 산림, 마을내 자원, 하천, 역사문화 등의 자원을 사람이 평온하고 즐겁게 느낄 때 농촌어메니티 자원이 되어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농촌어메니티는 생명과 직결되고, 하나의 조직체로서 역량이 갖추어질 때 우리 인간들에게 효용의 가치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농촌어메니티를 살려 도농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코자 한다.

4.1 효용 가치가 높은 어메니티의 발굴

농촌어메니티자원은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 등으로 구분하고, 자연자원에는 수자원, 지형자원, 식물자원, 동물자원, 환경자원 등으로, 문화자원에는 전통자원, 경관자원 등으로, 사회자원에는 시설자원, 경제자원, 공동체자원 등이 있다(정남수, 2005). 이러한 자원은 정책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자원별로 비중이 다르게 다루어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농촌어메니티가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효용가치, 교환가치가 높아야 한다. 그러한 자원을 발굴하여 농촌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지역개발 및 지역활성화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

효용가치가 높은 어메니티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메니티의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가치평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돌담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농진청 이상영(농진청, 2007)은 4,371억원(2006년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영(농진청, 2007)의 연구와 같이 어떤 특정자원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가치를 확인하고 활용가능성과 활용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농촌어메니티의 가치평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 정부, 공기업 등의 경영평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BSC(균형성과표)에 의한 가치평가이다.

BSC(균형성과표)에 의한 평가는 4가지 관점, 즉 재무적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 및 성장관점으로 나누고, 재무적관점을 투자효과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은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관점으로 그대로 내부프로세스관점으로, 고객관점은 방문객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은 마을주민 관점으로 전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투자효과 관점은 경제효과, 인구유입효과, 홍보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내부프로세스관점은 인적요소, 시설적 요소, 체험프로그램, 고객관리 및 마케팅 측면에서 평가하고, 방문객관점은 마을경관, 숙박시설, 프로그램,接客능력, 농산물의 신뢰도, 전체적인 만족도 등에 대해 방문객 관점에서 평가를 하며, 마을주민 관점은 사업의 영향, 마을주민간 관계, 마을주민과 방문객 관계, 주민역량 등에 관하여 마을주민 관점에서 평가를 하여 투자효과관점의 가치가 높은 자원부터 그린투어리즘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적극 개발한다. 내부프로세스관

점은 사업화가 되어 추진이 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평가하는 것이며, 방문객 관점, 마을주민관점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어메니티자원을 개발하면, 효과적으로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여 현시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대해 각 관점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발굴 및 사업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유형별, 종류별로 각 관점별 점수의 비교를 통해 도농교류 및 지역활성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2 농촌어메니티자원의 계량화에 의한 소득화

농촌어메니티자원은 효용가치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으며, 경제적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소득화에 대한 계량화 기법이 필요하다.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소득화에 대한 계량화기법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나,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메니티 자원은 특성에 따라 관광객에게 주는 매력의 형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매력의 극대화를 통한 정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어메니티자원의 가치 창출형태를 고려하여, 예를 들면 유기농업은 도시민들이 직접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농산물의 구매가 가능하고, 최종적인 농촌관광소득은 직접 구매를 통하여 생기는 것으로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주체는 마을주민이며, 전문가 또는 연구자들의 역할은 유기농업의 지도와 농산물의 판매량을 구축해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나머지 어메니티자원들에 대하여 체험, 구매, 여가, 관찰, 관람 등 다양한 형태의 매력을 가지며, 각각에 대한 소득발생 형태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형태에 따라 체계화할 수 있다. 엄대호·김대식(2006)은 어메니티자원이 관광객에게 주는 매력의 형태 측면에서 체험, 구매, 여가, 관찰, 관람, 휴양, 체류 등 7가지의 농촌관광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분류형태는 농촌마을이 가지는 관광형태가 아니라, 농촌마을의 농촌관광소득 추정을 위한 하부 기능별 함수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4.3 농촌어메니티의 클러스터 개념의 접근

클러스터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개념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으며, 광의의 의미로는 실제적, 잠재적으로 핵심 산업과 구매·판매의 연관관계를

갖고 연결된 모든 산업들의 산업체의 군집을 의미하며 특히 네트워크를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지역적인 근접성을 갖고 있는 사업체들의 군집을 말한다(Porter, 1998). 또한, 클러스터는 기업, 연계조직 및 지식조직이 작동하고 혁신되는 가변적 선택환경(variation and selection environment)를 가지고, 네트워크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클러스터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활동하기도 하며 국지적인 시장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적인 가치사슬(value chain) 기반을 가진 클러스터에 의해 공급받기도 한다. 클러스터 내부적으로는 국제적인 요소와 지역적인 요소, 그리고 국지적인 요소가 공존하여 발견되기도 하므로 클러스터는 공간적으로 지리적인 수준을 초월하는 개념이다.¹⁾

농촌어메니티의 클러스터의 사례로는 보성녹차클러스터가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녹차는 단순히 차잎을 채취하여 상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에만 국한된 소재가 아니라 다양한 2차·3차 산업으로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녹차잎을 섞은 사료를 먹인 녹우·녹돈프랜차이즈 사업, 해수탕을 활용한 관광지, 녹차밭의 경관조성에 의한 농촌관광,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의한 장소마케팅 등을 보성군, 대학(전남대, 순천대), 산업체 등이 참여한 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클러스터는 생산·가공·유통의 전과정에 있어 관·산·학·연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농촌어메니티의 생산은 농민이 하고, 가공·유통도 농민 참여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농가소득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클러스터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공한 예가 보성 녹차 클러스터이다. 유통도 인터넷의 발달로 농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마케팅의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농민들의 참여에 의한 유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은 정보화사회이다. 전국 어디에서도 인터넷공간상에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마케팅도 네티즌을 위해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의 발달은 농산물의 유통혁명을 가져올 수도 있다.

클러스터 개념에 의한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 농민이 참여하더라도 농민 혼자만으로 안된다. 관·산·학·연의 네트워크에 의한 지역의 각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고, 새로운 어메니티 활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연구기관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

4.4 농촌어메니티의 조직적 접근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지역혁신을 위한 지식클러스터 실태 분석, p42 참고하여 일부수정 정리

농촌어메니티는 생명이며, 조직체라고 필자는 정의하였다. 인간이 살아가는 밑바탕이 되는 것은 다른 생명체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생명체들과 먹이사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농촌어메니티도 자연속에 있는 자체만으로 가치를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참여하고 활용할 때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 농촌어메니티도 농촌에 존재하는 생명체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농촌어메니티를 생명이라고 정의하였다.

농촌어메니티를 조직체라고 정의한 것은 조직은 어떤 목적을 향해 구성되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은 하나의 조직 구성요소로서 조직의 목표를 향해 공동으로 노력을 할 때 조직이 유지·발전되는 것이다. 농촌어메니티도 어메니티 자원 각각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를 발현하지 못한다. 서로 연관이 있는 요소들끼리는 연관을 시키고, 무형의 가치를 부여할 것은 부여하고, 관광객들이 원하는 요소를 잘 발굴하여 이용하거나 즐길 수 있게 하여 하나의 조직체로 만들 때 농촌어메니티의 가치가 발현될 것이다.

조직은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듯이 농촌어메니티로 가치를 잘 발현시킬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조직이 공동 목표로 향하여 각 구성원들이 활동을 하듯이 농촌어메니티도 각 자원별로 각각의 색깔을 내더라도 그 지역의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의 현시화가 되어야 지역의 특색 있는 농촌어메니티가 형성되어 농촌어메니티의 가치가 높아 지는 것이다. 이렇듯 농촌어메니티도 조직적인 접근이 있을 때 유·무형의 가치를 잘 발현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4.5 농촌어메니티의 종합적·체계적·계획적 개발

농촌어메니티와 관련된 정책·사업은 아주 다양하다.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농촌공간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공모 방식에 의해 주민참여라는 명분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몇 개 사업이 하나의 마을에 중첩하여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사업의 성격과 목적이 달라 중첩된 사업이 없다고 할 지라도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 마을에는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마을은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농촌지역이 너무 넓어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는 늦게 나타나고 하나의 사업만으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몇가지 사업이 들어갈 때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해당 농촌지역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채, 사업효과가 높은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다보니 그러

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책실행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의 성과가 빨리 나타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 그렇다보니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이미 타 사업이 들어간 마을이 선정된다.

마을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농촌계획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젠, 농촌어메니티의 효율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체계적·종합적인 농촌계획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심지로 개발할 지역은 성장거점이론에 의해 집중 투자를 하고, 중간지역으로 개발할 지역은 그러한 목적대로 개발하고, 마을을 합쳐야 할 마을은 합치고, 학교가 들어서고, 편의시설, 문화시설이 들어서야 할 곳은 들어서게 하는 계획을, 전원마을로 육성할 마을은 전원마을로 육성하고, 일정한 보조금만의 지원으로 농촌에 살 사람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규모 영농으로 농촌에 살 사람은 영농의 편의를 위한 지원을 하면 된다.

이러한 농촌계획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계획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농촌계획법에는 토지이용계획, 경관계획, 용도지역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보전해야 할 지역은 보전하고, 보전지역은 규제를 받게 되는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개발을 해야 할 지역은 적극적인 개발을 법적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마을의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에도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 농민이 농가주택, 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농업진흥지역내 무분별한 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다. 그런데,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법에 허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주거생활 적합지역은 주거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발은 법적 계획에 의해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4.6 기존의 생산기반정비사업등도 어메니티 증진 사업으로의 정책 전환

경지정리, 배수개선, 용수개발, 간척사업 등의 생산기반정비사업에 있어서 다원적 기능 증진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듯이 이러한 사업도 농촌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경지정리사업은 지금까지는 들녘에 농사일을 한 후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이 농도, 용수로, 배수로만으로 짜여져 있다. 가을 들녘에 펼쳐지는 황금물

결은 농촌마을, 산림 등과 함께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종합적 농촌어메니티를 연출한다. 이러한 농촌어메니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방문객을 위한 쉼터, 농사일을 하다 지친 농민들을 위한 쉼터, 농업어메니티와 어울리는 문화공간 조성, 친환경농업을 위한 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필요가 있다.

용수개발은 농업용수위주로 개발되다가 생활용수, 환경용수 개념을 추가하여 농촌용수개념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농업을 위한 용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촌의 어메니티의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질정화용수, 위락용수, 농촌관광용수까지 포함한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에 개발된 용수도 이러한 용수개념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도시주변의 저수지가 유원지로 탈바꿈되면서 방문객의 증대로 도시주변의 좋은 휴양지로 변모하는 지역을 많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농업용으로 개발된 저수지가 관광지로서 훌륭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존에 개발된 저수지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사업을 개발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농촌어메니티자원을 잘 개발한다면, 기존 생산기반사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시행된 대호방조제를 보더라도 이젠 훌륭한 관광지로 변모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조성중인 새만금지구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공·유통이 함께 어울어지는 농산업혁신클러스터형으로 조성하면, 팔목할만한 농업의 혁신을 가져오고, 지역농업의 발전,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배수개선사업도 홍수의 배제만을 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친수공간 조성, 생태공간조성 등을 추가하여 친환경적인 어메니티생산공간으로 가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4.7 농촌어메니티 박물관조성사업 등 신규사업의 도입

지금까지 필자가 기술한 바와 같이 농촌어메니티는 농업생산공간과 농촌공간, 농촌사회공동체 모두에 걸쳐 자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농촌어메니티 박물관 조성이 필요하다. 농촌어메니티 박물관 조성 사업은 기존의 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시행된 농지, 수리시설과 농촌마을내 어메니티자원 등을 종합하여 농촌어메니티를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본 사업에는 시설적 차원의 H/W와 직불제, 주민역량강화, 농촌문화교류 등 S/W가 함께 어울

어진 사업을 말한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존의 사업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4.8 농촌어메니티 조직을 운영할 인력 육성

농촌어메니티는 조직체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체는 잘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어메니티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다. 현재, 일반적인 농촌마을의 인력구조는 65세 이상의 인력이 50%나 되고 대부분 60세 부근에 있다. 그렇다보니,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지속적인 성장과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잘 길러져 선배들이 퇴직을 하더라도 그 조직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다. 그런데, 농촌어메니티에도 이러한 인적자원의 순환구조가 형성될 때 지속적인 발전이 있지만, 현재 그런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농촌어메니티의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어메니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인력의 육성을 위해 농업농촌관련 대학 졸업생의 농촌정착시 대폭적인 지원, 농업농촌관련 기업의 육성 및 농촌지역 유치, 농촌정착을 위한 기술 습득 교육 지원, 기존 농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농촌어메니티 교육 강화, 농촌어메니티 교육 인증시스템 도입, 일정 교육 및 자격자에 대한 농촌정착 지원 등을 통한 농촌어메니티 조직을 유지발전 시킬 수 있는 인력 육성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9 농촌어메니티를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조직 육성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농촌어메니티는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 등의 어메니티 자원과 어메니티자원을 발굴 및 현시화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을 종합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 조직은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의 중앙부처에서 농촌어메니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의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다보니 사업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이 되지 않고 농촌어메니티 증진에 어떠한 사업이 얼마나 기여하는 지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개발업무의 통합적 조정을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

별법(이하 ‘삶의질향상특별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범국가적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되어 운영중이다.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 수립·점검, 지역개발·교육·복지 관련 삶의질 증진 사업의 점검·평가·조정을 통해 농촌어메니티의 효율적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외국, 영국의 경우에서도 DEFRA(Dep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환경·식품·농촌성)라는 조직을 만들어 농촌어메니티의 종합적·효율적·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산발적이고, 분산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농촌어메니티 관련 정책·사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직의 설치는 새로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므로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법의 제정을 통해서라도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농촌어메니티 추진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4.10 거버넌스적인 농촌어메니티 조직 운영

우리나라의 경우 거버넌스 관련 연구는 정치 및 행정학계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주목받아오면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다소 포괄적인 합의를 이룬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력, 경쟁, 대립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개념이다(Pierre, 2000; UNDP, 1997; R hodes, 2000),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부의 역할, 운영체제 또는 사회문제의 해결방식 등의 변화를 의미하며(이명석, 2002), 과거처럼 관료들이 일방적, 수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정책커뮤니케이션내의 이해관계자들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NGO, 일반시민, 직능단체 등을 정책과정에서 참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공공의사결정의 형태이다(염일열·설성현, 2003). 거버넌스는 확실히 공공의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정책,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른 이해관계 집단을 통합시키기 위한 능력으로서 정의된다. 공공의 관여, 제도적 발전, 의사결정의 투명성, 관심의 표현, 갈등의 해결, 권력의 제한, 리더십 책임은 거버넌스의 중요한 이슈들이다(Frischtak, 1994 ; 김진동(2005)에서 재인용)

농촌개발에도 대표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같이 주민, 전문가, 토지소유자,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학계, 연구소, 전문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다. 물론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며, 주민들의 의사결정은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의 자문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추진 역량이 농촌개발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하며, 거버넌스적 접근에 의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상향식이라고 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전문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등의 의사결정에 기여하면 거버넌스적인 접근에 의한 사업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 체계를 잘 이끌고 나가는 주체는 물론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젠, 농촌어메니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및 참여자는 이러한 거버넌스적인 접근에 의한 조직 운영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는 이러한 거버넌스적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농촌어메니티를 살릴 수 있는 지역개발 및 지역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11 지역리더 및 지역주민에 의한 농촌어메니티의 개발

앞장에서 제시한 봉평메밀, 보성 녹차, 함양 하고초 사례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어떤 조직이든 사물이든 주인이 필요하다. 주인이 없으면, 조직은 무너지고 사물은 망가지고 만다. 지역개발과 지역활성화의 주인은 농촌주민이 되어야하며,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리더가 필요하다. 우수한 지역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리더에 대한 교육, 해외연수, 이벤트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4.12 IT, BT 등 첨단기술의 효과적인 활용

유비쿼터스화가 이루어지면 가정·자동차는 물론, 심지어 산 꼭대기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컴퓨터 사용자의 수도 늘어나 정보기술산업의 규모와 범위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광대역통신과 컨버전스 기술의 일반화, 정보기술 기기의 저가격화 등 정보기술의 고도화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화는 되어 있지 않으나, 세계적인 개발 경쟁이 일고 있어 멀지 않아 일반화가 될 것이다.

농촌도 정보화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의 사업시행으로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 마케팅 및 농산물 판매 등 정보기술에 의한 농촌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도시와의 이격된 거리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농촌의 어메니티에 대해 누구나 접할 수가 있다. 그래서, IT 기술의 발달로 농촌개발의 가능성이 보이는 점도 있다.

GIS시스템에 의한 농촌어메니티 자원도 구축사업도 진행중이다. 농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농촌어메니티자원을 GIS시스템에 축적함으로써 수요자가 원하는 어메니티의 혜택, 효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농업의 부가가치가 증대되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인간의 먹거리가 생명공학의 기술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유전자변형으로 인한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점도 있다. 그런데,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약초, 농특산물의 효능을 검증할 수 있고, 인체에 유용한 성분추출에 의한 웰빙, 장수산업을 육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활용기술이 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IT, BT 기술의 진보는 농업·농촌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IT, BT 기술과 결합된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개발 기술·사업·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착실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4.13 어메니티 농업 육성

어메니티 농업은 필자가 제안하는 농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채, 메밀 등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농촌어메니티 증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으로 경관농업에 대한 논의와 개념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 고창지역에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여 경관농업을 위한 조례제정,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청보리밭과 메밀밭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수확물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떨어지지만, 청보리밭 및 메밀밭 경관을 보러오는 방문객들에게 음식판매등으로 주변지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고창의 청보리밭과 같이 어메니티 증진에 의해 관광객을 유도하여 방문객들에게 관광지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을 어메니티

라고 필자는 정의한다.

야생화, 코스모스 등 현재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작목뿐만 아니라 청보리, 화훼류 등 수확물의 판매에 의한 소득으로는 농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지 않지만, 어메니티 증진에 의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음식판매, 숙박, 체험 등 농촌관광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작목을 재배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어메니티 농업은 경관농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어메니티 증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해 나간다면 경관보전직불제와 같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농촌관광에 의한 지역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메니티 농업은 농산물 개방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쌀재배 면적의 조정 유도로 쌀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농촌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어메니티 농업 육성 정책은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14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농업 육성

미래는 에너지 전쟁시대가 될 전망이다. 화석연료의 매장량도 현재 상태로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50년도 남지 않았다고들 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미래의 에너지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

농촌어메니티자원, 즉 유채, 옥수수, 콩 등의 어메니티 자원은 바이오에너지원으로서 각광을 받음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는 등 인간의 먹거리이면서 에너지 생산원으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농업도 미래의 에너지와 관련된 농업을 육성해 나간다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농촌어메니티의 증진을 위한 농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에너지는 바이오,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 의한 에너지를 말한다. 이 중 바이오에너지는 최근에 세계적으로 상용화 기술에 개발되어 미래의 에너지 문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유채 재배에 의한 바이오에너지 시범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되어 올 연말부터 3년간 당 17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태양광에너지도 전력공급 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 농촌지역에서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광의 집적 기술의 발달로 점점 실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농촌어메니티의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에 의한 냉난방, 온실농업 등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

질 수 있다. 주거생활, 시설농업에 있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경쟁력도 갖출 수 있으므로 환경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한 바이오연료를 자동차연료인 경유에 5%를 혼합하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중이다. 그렇게 되면,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덜 받게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억제되어 대기오염이 적게 발생하고 석유가 전혀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입이 용이하면서, 우리의 농토에서 생산이 가능한 유채, 콩, 옥수수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국제석유시장의 변동에도 일정 기여를 할 수 있고, 미래의 에너지 전쟁에도 대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바이오에너지의 생산농업은 미래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채등의 에너지 작물은 어메니티 증진에도 큰 기여를 하므로 친환경에너지의 농촌마을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은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과 친환경 이미지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어 농촌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사업 추진, 그리고 농촌개발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우리보다 선진국인 유럽에서 1980년대에 농촌부흥을 위한 정책개발 논리로 도입된 농촌어메니티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 지리적 여건, 역사문화전통 등을 고려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때가 되었다.

그런데, 유럽의 여건과 우리의 여건은 기후, 지리적,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러한 개념적 접근하에 유럽의 정책을 참고하여 새로운 추진 조직, 법·제도 정비, 새로운 정책·사업의 개발 및 추진에 의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활성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추진한 직불제, 지역개발, 생산기반 등의 정책·사업이 농촌어메니티와 관련된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메니티 지향적 개념으로 잘 디자인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고, 지역활성화 사례도 보성 녹차, 봉평 메밀, 함양 하고초 등 몇몇 지역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성녹차 등 농촌어메니티 개발에 의한 도농교류 활성화 사례 분석을 통해 농촌어메니티 개념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그러한 접근에 의해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효용가치가 높은 어메니티를 발굴
2. 농촌어메니티자원의 계량화에 의한 소득화
3. 농촌어메니티의 클러스터 개념에 의한 접근
4. 농촌어메니티의 조직적 접근
5. 농촌어메니티의 종합적·체계적·계획적 개발에 의한 지역활성화
6. 기존의 생산기반사업도 어메니티 증진 사업으로의 전환
7. 농촌어메니티 박물관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의 도입
8. 농촌어메니티 조직을 운영할 인력 육성
9. 농촌어메니티를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조직 정비
10. 거버넌스적인 농촌어메니티의 조직 운영
11. 지역리더 및 지역주민에 의한 농촌어메니티의 개발
12. IT, BT 등 첨단기술의 효과적인 활용
13. 어메니티 농업 육성
14.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육성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부터 농촌어메니티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농촌어메니티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한미 FTA체결로 농촌부흥을 위한 논리·수단으로서 농촌어메니티가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간의 FTA는 시대적 조류로 인식되어지는 상황에서 FTA 반대로 우리의 농업을 보호한다고 장기적으로 농업·농촌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얼마 있지 않아 우리 농업도 외국의 농업과 무한경쟁을 해야할 상황이 올 것이다. 농업의 대내외여건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한다면, 농업·농촌에 관여된 모든 정책담당자, 공공기관종사자, 학계, 관련 연구기관, 관련 단체, 농민, 농촌주민 등은 머리를 맞대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논리와 수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농촌어메니티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접근으로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의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정책 방향을 필자의 관점에

서 제시해 보았다.

농촌이라는 생명체, 조직체가 성장동력인 젊은 인력, 지역리더 등이 부족하여 시들고 있다. 직불제, 지역개발사업, 생산기반사업 등도 지역활성화를 위해 보완할 점이 많다.

FTA등 국제적 협상을 잘 이끌기 위해서도 지역개발 및 지역활성화 논리가 필요하다. 농촌이 살아숨쉬는 생명체로 만들기 위해서 타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논리와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 제시한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도농교류 활성화할 수 있는 농촌어메니티 정책 방향은 새롭게 펼쳐지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가 될 수 있고, 농촌어메니티의 새로운 접근에 의한 도농교류 및 지역활성화가 범국가적 운동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조그만 단초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문헌】

1. 과학기술정책평가연구원, 2001, 지역혁신을 위한 지식클러스터 실태분석
2. 김대식, 2005, 농촌관광기반의 지속가능한 마을정비 유형의 설정,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1(1), pp.45-53
3. 김진동, 2005, 지역관광개발에 있어 관광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지속가능한 관광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1998, 지역계획론 : 이론과 실제
5. 류선무등, 2003, 그린투어리즘 이론과 실제, 경북대학 청농관광농업연구소
6. 문동신, 2005, 농산어촌 어메니티의 자원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박상수, 2006, 관광서비스관리론, 백산출판사
8. 박덕병, 2005,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외국의 농촌개발정책,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9. 박석희, 2002,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 어메니티자원 활용기술,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 어메니티 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 심포지엄자료집, pp.57-81
10. 박시현외, 2006, 농촌의 미래 모습, “농촌공간 2020”, 한국농촌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석희진, 2007,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발전 방향,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자원과 생활 109호, pp75-81

12. 엄대호, 2007, 어메니티 가치 제고를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 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자원과 생활 109호, pp37-49
13. 엄대호, 2006, 농촌마을의 그린투어리즘 성과지표 개발 및 수익추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엄대호, 2005, 농촌관광 클러스터 육성 전략, 한국농공학회지 전원과 자원, pp.54-58
15. 엄대호 · 김대식 · 김태철 · 김은순, 2006, BSC에 의한 농촌마을 그린투어리즘 성과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12(3), pp.43-55
16. 엄대호 · 김태철 · 김은순, 2006, 요인분석에 의한 농촌마을의 그린투어리즘 수익 추정 모형 개발, 한국농촌계획학회, 12(4), pp.23-32
17. 엄대호 · 김대식등, 2006, 농촌관광마을의 평가와 농외소득 증대방안 연구, 한국 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18. 엄대호, 2004, 삶의 향상을 위한 물자원의 관광개발전략, 한국관광개배수, 12(2), pp.24-31
19. 엄대호, 2004, 향토산업클러스터 육성에 의한 농촌활성화 전략,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삶의 질 높임과 향토산업 심포지엄 · 전시회 자료집
20. 윤대순등, 2006, 관광경영학원론, 백산출판사
21. 윤원근, 2002, 우리나라 농촌어메니티 개발정책과 과제,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 연구소 ·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 어메니티 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 심포지엄자료집, pp.3-28
22. 이상영, 2007, 제주 돌담 문화자원의 가치평가 및 보전 방안,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자원과 생활 109호, pp37-49
23. 정남수, 2005,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평가를 위한 조사표와 항목 개발, 한국농촌 계획학회지, 11(4), pp.9-15
24. 정남식, 2003, 이용자 만족요인 분석을 통한 농촌어메니티 자원평가-농촌관광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5. 조원길 · 박철영 · 노환주 · 조용환 공저, 2004, 전자상거래마케팅 전략, 연화사
26. 최수명, 2002, 농촌어메니티 자원화 방안,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한국 농촌계획학회, 농촌 어메니티 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 심포지엄자료집, pp.3-28
27. 황한철외, 2005, 농림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 · 평가 · 방안 연구, 농림부
28. OECD, 오현석 · 김정섭역, 2002, 지역개발과 어메니티, 새물결